

貿易收支赤字의 原因과 對策

成 明 基

〈韓國開發研究院巨視經濟室 研究員〉

1. 위험수위(?)인 무역수지적자

86년에서 89년까지 4년 동안 국제수지기준으로 280여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이루었던 우리나라는 90년엔 20억 달러의 적자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71억 달러라는 큰 수치의 적자를 보였으며 올해에도 91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해 빚이 늘어 나게 되고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드높다.

최근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소위 '3저시기'-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인 86~88년에 10% 이상을 보이다가 89년에 주춤했을 뿐 다시 90, 91년에는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특히 최근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노동력과 자본, 기술 등을 고려한 잠재성장률이 7~8%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로 인해 물가가 급증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간략히 보면 90, 91년의 경제상황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수출증가율을 초과하는 수입증가율로 인한 무역수지적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상황 아래서 대규모의 무역수지적자가 초래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2. 최근 무역수지적자의 원인

1) 수출경쟁력 약화

수출의 경쟁력 측면을 살펴본다면 가격면에서 환율과 노동비용, 비가격면에서 기술·품질 등을 들

무역수지 동향

〈表-1〉 (단위: 억 달러, %)

	86	87	88	89	90	91
수 출	339 (28.2)	462 (36.4)	597 (29.0)	614 (3.0)	631 (2.8)	695 (10.1)
수 입	297 (12.3)	386 (29.9)	482 (24.9)	568 (17.9)	651 (14.6)	766 (17.6)
무역수지	42	77	114	46	△20	△71

註: 국제수지기준.

資料: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2.1.

주요 경제지표 동향

〈表-2〉 (증가율, %)

	85	86	87	88	89	90	91
G N P	7.0	12.9	13.0	12.4	6.8	9.0	8.7
소 비	6.3	8.4	8.1	9.7	10.7	10.2	8.8
투 자	4.7	12.0	16.5	13.4	16.9	23.4	13.7
수 출	4.4	25.8	23.7	14.0	-5.0	4.6	10.2
수 입	0.3	19.3	20.1	12.3	14.2	13.2	17.1
소비자물가	2.5	2.8	3.0	7.1	5.7	8.6	9.6

註: 91년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물가제외).

資料: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국민계정」, 최근호.

실질환율의 추이

<表-3> (85.3/4~86.2/4=100)

	86	87	88	89	90	91
명목실효환율	108	109	102	91	96	103
실질실효환율	106	106	99	90	94	97
상대물가	102	103	103	101	103	107

註: 명목실효환율=가중치를 적용한 각국 화폐당 원화환율.

상대가격=한국의 물가/각국의 물가.

실질환율=명목환율/상대가격.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분기별 경제전망」, 각호.

수 있었다.

먼저 환율면을 살펴보자. 한나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중의 하나로 실질실효환율을 들 수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환율이 절하되면 수출상품이 싸지고, 외국에 비해 우리의 물가가 더 크게 증가하면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출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데, 실질실효환율이란 상대환율의 절하분에서 상대물가의 상승률을 빼준 것이다. 85년 하반기에서 8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100 이상이면 우리의 환율이 저평가 된 것이고 100 이하이면 고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表-3>을 살펴보면 86~88년 기간에는 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환율이 저평가 내지 적정수준이어서 수출하는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89, 90년에는 10~6%의 고평가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고 작년말에야 적정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고평가 되었던 이유는 88년 이후에 우리의 환율이 크게 절상되었고 물가도 외국에 비해 높게 증가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좀더 상세히 환율과 상품의 수출단가를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환율이 절상되면(예를 들어 1달러당 800원에서 700원으로) 수출상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출증가세가 둔화된다.

우리나라보다 1~2년 앞서서 일본과 대만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흑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해 큰폭의 절상을 보였다. <表-4>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절상되었던 86~88년 시기에 연평균 8.6% 절상되는 가운데 수출단가를 11.1% 인상하였으나 일본과 대만은 환율이 각각 18.6%,

주요 경쟁국의 환율 및 수출단가 비교

<表-4> (1985=100)

		86	87	88	89	90	절상기의 연평균증가율
한국	환율	101	94	84	77	81	-8.6
	수출단가	102	112	128	140	140	11.1
일본	환율	70	61	54	58	61	-18.6
	수출단가	119	130	143	142	140	12.7
대만	환율	95	80	72	67	68	-9.5
	수출단가	103	119	132	140	139	8.8

註: 환율은 평균환율기준, 각 나라의 절상기는 한국(86~89), 일본(85~88), 대만(85~89)임.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분기별 경제전망」, 1991.3/4.

9.5% 절상되는 가운데 수출단가를 12.7%, 8.8% 인상하였다.

우리나라는 환율의 절상률보다 수출단가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이 일본·대만과 다른 특징이다. 수출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면 수출단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 단위를 수출할 때 이전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수출단가의 급증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일본은 엔화환율이 미 달러화에 대해 84년말의 251.65엔에서 87년말의 121.98엔으로 106.3%나 절상되었으며 평균 환율기준으로 85~88년 사이에 연평균 18.6%나 절상되었으나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중요시하여 이를 수출단가에 그대로 전가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수출기업의 이윤마진을 줄임으로써 흡수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자시기에 있어서 환율의 절상분이 일본보다는 높은 비율로 수출단가에 전가되었으며 이 시기에 있어서 수출기업의 이윤마진이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후자로 인한 자금을 설비와 기술투자에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쓰여지도록하는데에는 상당히 소홀하였다. 그 당시에 기업들은 국내의 주식과 땅투기 같은 비생산적인 측면에 많은 자금을 쓴 것이다.

노동비용측면에서 수출가격의 경쟁력을 살펴보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의 임금수준이 크게 오르고 있어 수출경쟁력면에서 뒤지고 있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86~9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임금수준은 연평균 19%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중의 일본과 대만이 3.6%와 12.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반면에 생산성증가율은 4.6% 정도이나 일본과 대만이 5.8%와 8.3% 증가하였다. 미 달러기준으로 한 단위생산에 드는 단위노동비용도 우리나라가 20.2%나 증가하여 일본, 대만의 1.7%, 12.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본은 86~88년에 환율의 급격한 절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20%씩 급증하였으나 8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90년 이후엔 우리나라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의 노동비용 비교

〈表-5〉 (1985=100)

		86	87	88	89	90	86~90 연평균증가율
한국	임 금	109	122	146	182	219	19.0
	생 산 성	108	111	120	120	130	4.6
	단위노동비용	100	116	145	197	208	20.2
일본	임 금	102	105	106	112	118	3.6
	생 산 성	98	107	114	119	123	5.8
	단위노동비용	147	162	174	164	158	1.7
대만	임 금	110	121	134	154	175	12.2
	생 산 성	111	123	129	141	153	8.3
	단위노동비용	104	124	145	165	169	12.8

註: 제조업기준, 단위노동비용은 美 달러기준.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분기별 경제전망」, 1991.3/4.

GDP 성장률에 대한 수출·내수의 기여도

〈表-6〉 (증가율, %)

		80~85	86	87	88	89	90
GDP 성장률		8.4	12.4	12.0	11.5	6.1	9.0
성 장	수 출	39.7	72.9	69.6	48.0	△31.4	23.1
기여도	내 수	60.3	27.1	30.4	52.0	131.4	76.9

註: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1.

2) 내수주도 고성장애 따른 수입급증

최근의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전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내수에 의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表-2〉를 다시 살펴보면 86~87년은 소비나 투자보다는 수출의 증가율이 더 컸으나 88년 이후에는 수출증가율이 낮은 대신 소비, 투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表-6〉을 갖고 살펴보면 GDP 성장률에 대해서 86~87년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더 높아서 이때에는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8년에 균형을 이룬후 89년 이후에는 수출보다는 내수쪽의 기여정도가 더 컸는데 이때에는 건축경기의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 높아진 임금수준으로 인한 소비증가,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중심의 성장이었다.

〈表-7〉의 상품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이룰 수 있다. 용도별 수입에 있어서 89년 이후에는 수출용 수입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고 내수용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원유를 포함한 연료도 90, 91년에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건축경기를

상품별 수입구조

〈表-7〉

	86	87	88	89	90	91
내구소비재	4.1	4.5	3.9	3.5	3.6	3.7
원 자 재	54.3	54.9	53.8	53.6	53.9	53.2
연 료	15.9	14.6	11.6	12.4	15.7	15.7
철 강 재	4.3	4.6	4.7	5.3	4.8	5.8
자 본 재	35.9	35.5	36.7	36.4	36.4	36.9
기 계 류	14.7	15.1	15.3	16.5	16.9	17.2
전기전자	13.8	13.9	13.9	12.6	12.2	12.3
수 출 용	40.3	43.4	40.7	36.4	32.1	30.3
내 수 용	59.7	56.6	59.3	63.6	67.9	69.7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註: 전체에 대한 백분율.
資料: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2.1.

평균관세율 추이

〈表-8〉

	85	86	87	88	89	90	91
평균관세율	21.3	19.9	19.3	18.1	12.7	11.4	11.4

반영하여 철강재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또한 기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을 높이려는 이유 외에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이 건설·서비스산업으로 집중되어 제조업에선 산업기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기인한다.

한편 최근 수입급증의 한 요인으로 우리 시장의 개방화도 기여했을 것이다. <表-8>을 살펴보면 평균관세율이 86~88년의 20~18%선이 89년 이후 13~11%대로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수준이 커진 현재 수입급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상당부분이 수출지향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촉진이 중요하다.

먼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의 우리 수출산업은 주로 기술을 도입하여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 중·저부가가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이를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에 의해 주요 수출시장에 수출하는 형식이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금이 올라가고 미국·일본시장에서 우리에게 가격경쟁으로 도전하는 ASEAN, 중국 등에 의해 시장점유율이 점차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기술 등에 입각한 비가격경쟁위주의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고임금 체제에 맞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탈바꿈해 가면서 수출구조도 여기에 따라 고도화되어야 한다.

최상의 고가품은 아니지만 조잡한 저가는 아닌 방향으로 우리 상품의 설자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먼저 높은 수준의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기술투자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해 적응력이 강한 중소기업이 되도록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특정한 분야를 특화하도록 유도하여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효과를 높여야 한다. 특히 전

자부품,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의 분야가 적절할 것 같은데 이러한 전문기술적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적으로 적응하여 우리의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한편 산업간의 연계성을 높여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들에 대한 주력업종 선정에 대한 시책은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외마케팅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수출상품은 고유상표의 비중이 낮고 광고나 판매망 구축과 같은 마케팅 활동이 미약하여 중저가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전시회에 대한 적극적 참가와 해외판매망과 전시장의 확대, 동종 중소기업의 공동상표제, 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가격측면에서 환율과 임금에 대해서이다. 가격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개입의 여지는 적지만 실질 환율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정수준을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외환의 매입·매각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은 그동안 생산성 증가율 이상으로 급증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자제하여 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물가의 안정이 전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인력이 제조업으로 유입되도록 적정수준 이상의 서비스산업에 대해 세제면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며 건설업도 적정 이상의 과열경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안정망 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산업기술인력의 공급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 설비투자에 의해 성장세가 지속되어 왔기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혔었다. 이를 둔화시키기 위하여 내수경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왜곡을 바로 잡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촉진됨에 따라 95년경에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96년부터는 상당한 흑자를 내지 않을까 전망된다.